

행동하는 시

“Form Follows Flow.” - Mud

펴낸 이: 조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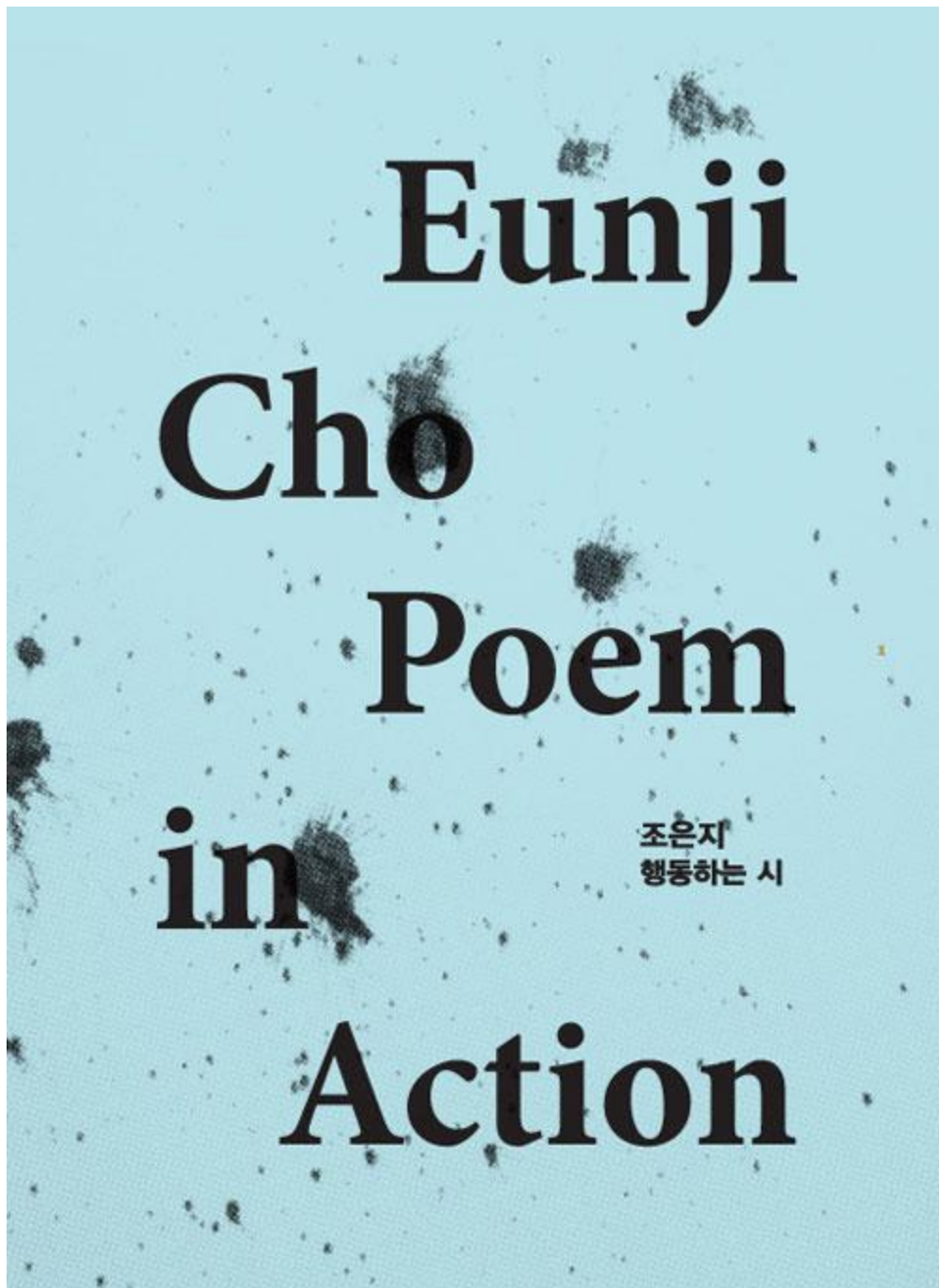
디자인: 김청진

번역: 박재용, 조현진, 태이

펴낸 곳: Rock-Paper-Scissors

인쇄 3P

ISBN 978-89-964396-6-0



작가는 육면체로 흙을 만들어 흙과 함께 탈출을 시도한다. 그녀가 흙과 함께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을 보면, 검문소의 사람들은 그 흙을 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흙은 자신이 흙으로 선언되는 순간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다. 어머니와 같은 땅, 흙은 또한 모든 미생물과 해충들의 서식지인 까닭에 자신의 이름과 모습으로 국경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흙은 이제 변신했으며, 작가와 탈출을 시도한다. 그런데 그녀는 왜 흙과 탈출을 도모하는 것일까? 작가는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흙과 자신은 같이 탈출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한다. 탈출을 위한 그녀의 이유는 자신의 삶의 불가능성에 대한 어떤 자각에 의해서 나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죽어가는 개들 앞에서, 터널을 막아내기 위해 단식하는 한 비구니의 눈물 앞에서, 작가로서 자신의 생계 앞에서 탈출을 꿈꾸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흙과 같이 하는 것일까? 작가는 2008년 「원형의 시」를 발표한다. 원형은 원형(圓形)과 원형(原形)이라는 동일한 발음 속에서 다른 의미로 세상에 퍼져 나간다. 둥그런 지구와 근원으로서 지구, 그리고 흙. 나뉘었지만 다시 만나는 모든 열린 개념에 대한 원형(圓形)과 원형(原形)을 이야기하는 작가는 인간이 흙으로 되돌아 가듯이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렸던 것인지도 모르며,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근원으로서 흙을 상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원형의 시
The Unsettled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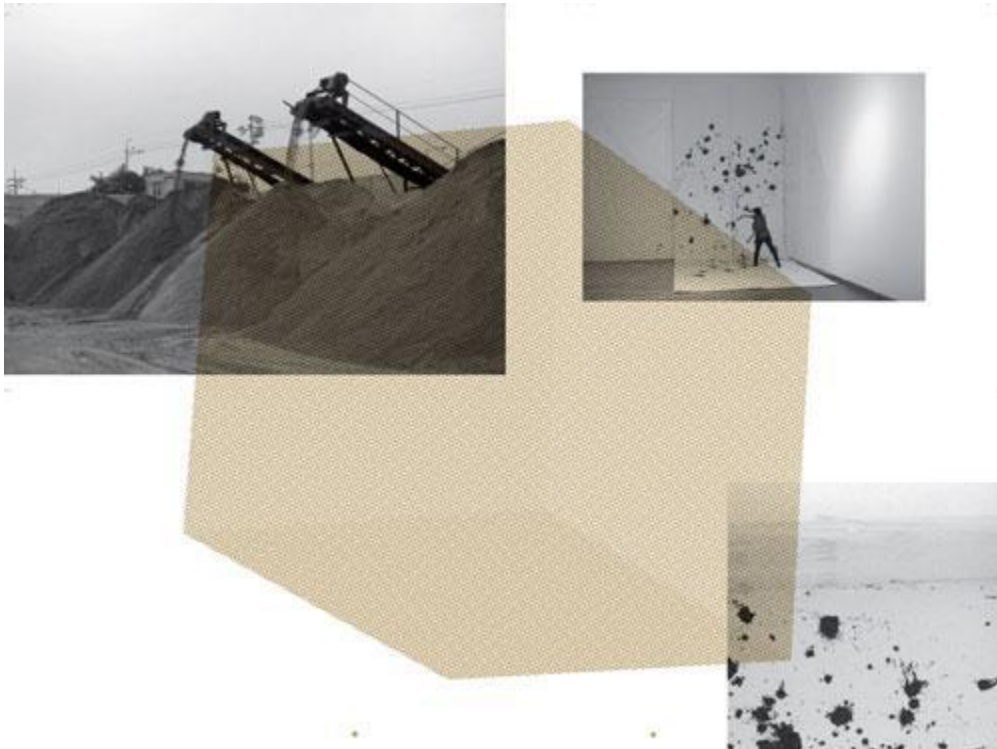


원 - 원형의 시
Earth - How Pasture, Thoughts of the World, Home



그러나 흙은 더 이상 근원적 의미의 흙이 아니다. 지난 해 봄, 뉴스는 의례적으로 한강 공원에 돌아온 썩을 캐어 요리해 먹지 말 것을 당부하는 보도를 냈다. 봄나물로 썩을 즐겨 먹지만, 한강 공원의 흙이 이미 중금속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돌아온 식용 나물은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땅, 흙은 오래 전부터 자본의 또 다른 지수로 사용되었다. 전국토는 판매가격이 기록되며, 분기별로 그 가격의 변화를 수학적으로 표시한다. 흙의 변신은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언제나 우리의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타자화되었다. 작가는 육면체로 흙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변신 시켰지만, 흙은 땅은 이미 우리들에 의해서 변형되고 오염되고 다시 복원된다. 사람들은 산을 관통하는 구멍을 내기도 하며, 바다를 매워 땅 아닌 땅을 만들기도

한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의 땅을 파헤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며, 파괴된 땅을 자연답게 되돌리기 위해서 또 다른 공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흙을 변신 시키고, 그와 함께 탈출을 도모하고, 성공한다. 그리고 탈출 이후 짚 없이 이별을 고한다. 작가의 말 그대로 '눈물 보다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별을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변형시킨 육면체의 흙을 뜯어 멀린 날린다. 그리고 흙은 '퍽'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근대라는 분리의 경험 이후, 우리는 자연과, 자연은 우리와 더 이상 합일 될 수 없으며, 각자는 자신의 삶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러한 공모와 탈출 그리고 이별을 이후로도 반복한다. 작가는 땅의 님프처럼 파주에서 광주로, 서울에서 베를린으로 베를린에서 헤이그로 흙의 탈출을 돕는다. 그리고 자신도 탈주한다. 글 김장언